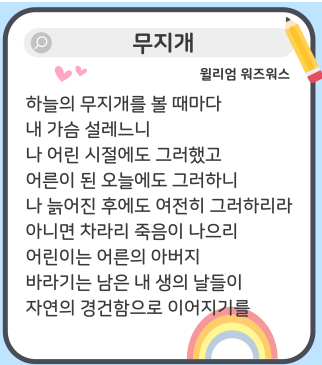


- 본문 : 마태복음 18장 1~5절
- 제목 : “천국의 가치를 따르는 자”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본문 읽기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 마음의 문을 열며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무지개>라는 시에서 어린 시절 무지개를 바라보며 느낀 그 신비한 감동을 늙어서도 여전히 간직하기를 소망하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 있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가족들과 함께 자신 안에 있어야 할 것인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와 물은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1절)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
2. 예수님께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이같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절, 5절, 3절)
3.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겸손의 가치, 작은 것의 가치, 변화와 성숙의 가치가 천국의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겸손하지 못한 것일까요?
4. 마크 배터슨 목사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와 어린이처럼 되어가는 성화, 두 가지 성화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성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윌리엄 커싱(William Orcutt Cushing) 목사는 말라기 3장 17a절을 묵상하다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라는 이 구절에서 ‘특별한 주님의 소유’, ‘특별한 주님의 보배’가 누구인가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이를 주제로 한 찬송시,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셋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위대한 생명의 역사는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어린이, 천국의 가치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때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 명의 어린이를 입양하여 양육하는 캠페션 동역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 말씀기도제목

1.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의 가치”, “작은 것의 가치”, “변화와 성숙의 가치”를 깨달아 천국의 가치를 온전히 따르는 자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2.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할 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한 영혼을 품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 하신 말씀 앞에서 열방과 북한과 우리의 다음세대를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게 하옵소서!